전승 72돐경축 조국해방전쟁시기 상징종대들의 기념행진의식
2025
조국해방전쟁승리 72돐
김지상
김기욱
강승현
량태현
우인섭
리히영

조선

2025 8

(831)

1956년 4월

화보 《조선》 창간

차　　　례

특별소식

2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인민의 최대의 추모의 날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4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당과 정부, 무력기관의 지도간부들과 함께 신천계급교양관을 돌아보시였다

6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승절에 즈음하여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찾으시였다

9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승절경축행사에 특별초청된 조선인민군 제4군단관하 포병구분대 군인들을 만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10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승 72돐에 즈음하여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찾으시였다

11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국해방전쟁승리 72돐에 즈음하여 우의탑을 찾으시였다

12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락원군바다가양식사업소 건설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16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위화도온실종합농장건설장과 섬지구 영구화제방공사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20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인민군군부대 후방기지를 찾으시고 논판메기양어실태를 료해하시였다

24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 포병구분대들의 사격훈련경기를 참관하시였다

28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로씨야련방 외무상을 접견하시였다

32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나라를 방문한 로씨야련방 문화상을 접견하시고 예술공연들을 관람하시였다

특　　집

36 ‖ 20성상의 항일혁명투쟁이 안아온 조국해방

46 ‖ 주체적혁명무력건설사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

소　　식

52 ‖ 조국해방전쟁승리 72돐 뜻깊게 경축

- 위대한 전승 72돐경축 조국해방전쟁시기상징종대들의 기념행진의식 진행
- 조국해방전쟁승리 72돐에 즈음하여 전승세대와의 상봉모임과 예술공연 진행
- 위대한 전승의 날을 맞으며

66 ‖ 남포조선소에서 다음해 당창건기념일까지 《최현》급 구축함 3호함건조를 결의

68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과 로씨야련방 외무상 사이의 제2차 전략대화 진행

70 ‖ 조로정부간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로씨야측 위원장일행 우리 나라 방문

오늘의 조선

72 ‖ 세계적인 관광문화휴양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표지: 위대한 전승 72돐경축 조국해방전쟁시기상징종대들의 기념행진의식 진행

뒤표지: 평양시청년학생들의 야회 및 축포발사 진행

편집: 변일진, 김규성, 조철주, 승룡

10

54

58

66

72

특별소식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인민의 최대의 추모의 날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31돐에 즈음하여 온 나라 전체 인민은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혁명의 대성인이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다함없는 경모의 정에 넘쳐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7월 8일 0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인 박태성동지, 최룡해동지, 조용원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당중앙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위원회, 성 책임일군들, 무력기관 지휘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에 **김정은**동지께서 드리는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들을 찾으신 **김정은**동지께서는 가장 경건한 영생축원의 인사를 삼가 드리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세기를 넘어 승승장구하며 인민의 리상을 전면적으로 훌륭히 실현해나가는 사회주의 우리 국가의 무궁번영과 더불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생애와 업적은 영원토록 길이 빛날것이라고 확언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당과 정부, 무력기관의 지도간부들과 함께 신천계급교양관을 돌아보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7월 24일 반제계급교양의 거점인 신천계급교양관을 돌아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신천계급교양관의 전시실들과 사백어머니묘, 백둘어린이묘, 군당방공호, 화약창고를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지금도 비극적인 년대의 피의 절규가 사무쳐오는 전시물들과 흔적들을 새겨보시면서 전쟁의 3년간 우리 인민이 강요당한 비통한 죽음과 가혹한 고통은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열백번 바뀐다 해도 절대로 가셔질수도 잊혀질수도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반제계급교양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순간이라도 늦추거나 소홀히 하게 되면 사람들의 혁명의식, 계급의식이 마비되고 혁명의 과녁, 주적관이 흐려지게 된다고 하시면서 혁명은 결코 한두세대에 끝나는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 계속되는 장기적인 위업인것만큼 계급투쟁의 바통을 굳건히 이어나가는 문제는 조국의 운명, 혁명의 전도와 직결된 중차대한 초미의 과업으로 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식 사회주의가 줄기차게 전진할수록, 이 땅에 부흥의 기상이 차넘칠수록 우리는 신천에 새겨진 가슴아픈 교훈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이것은 절대로 지울수 없는 피의 흔적이고 수난의 력사이라고 하시면서 신천계급교양관은 우리가 강해져야 하고 반드시 강해야만 하는 리유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총체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은 적들의 귀축같은 만행과 횡포에도 굴하지 않고 죽음앞에서도 《조선로동당 만세!》를 소리높이 웨쳤다고, 바로 이런 강인한 불굴의 인민이 있었기에 세계전쟁사에 류례없는 가장 참혹한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쟁취할수 있었으며 력사의 모든 도전을 딛고 누르며 오늘까지 올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신천의 비극을 또다시 강요당하지 않으려면 적이 두려워하는 강력한 힘을 가져야 하며 최강의 자위력을 만반으로 키우는 길에 자주적삶과 미래가 있다는 철리를 명줄로 이어가야 한다고 언명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을 계급교양의 열풍속에서 자기의 계급적근본을 항시 자각하는 혁명의 수호자, 계급의 전위투사들로 억세게 준비시킬 때 위대한 전승의 력사와 전통이 우리 국가고유의 국풍으로 굳건히 계승될수 있다고 하시면서 현시기 계급교양을 더욱 강화해나가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시고 제반 과업들을 밝히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원한의 체험자, 증견자로 수십년세월 계급교양진지를 지켜가고있는 주상원명예관장을 만나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당 혁명사상의 옹호자, 선전자들인 계급교양부문 강사들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항상 자각하고 앞으로도 계급교양의 전초선을 굳건히 지켜나가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신천계급교양관 일군, 강사, 종업원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특별소식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승절에 즈음하여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찾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승 72돐에 즈음하여 7월 26일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찾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당과 정부, 무력기관의 지도간부들과 도당책임비서들, 성, 중앙기관 책임일군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립상에 **김정은**동지께서 드리는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조선의 강대성과 존엄의 영원한 상징이시며 만고의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삼가 인사를 드리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국해방전쟁 제1계단부터 제4계단시기관, 근위부대관, 승리관을 돌아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지구의 동방일각에서 반제투쟁의 가장 첨예한 전초선을 굳건히 지켜낸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는 우리 수령님의 탁월한 군사사상과 주체전법, 령활한 전략전술의 승리이며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군대와 인민의 불같은 애국심과 백절불굴하는 조국수호정신의 승리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승의 축포가 오른 때로부터 장장 70여년세월이 흘렀지만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전승업적은 세기를 이어 우리 국가와 인민이 쟁취하는 모든 승리와 빛나는 존엄의 만년주추로 되고있다고 하시면서 고귀한 한평생을 다 바치시며 쌓아올리신 수령님의 혁명업적 하나하나가 다 위대하지만 신화적인 전승업적이야말로 세인이 경탄하고 우러르는 특출하고도 중핵적인 업적이라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쟁의 불길속에서도 우리 공화국이 영원히 승리를 떨칠수 있는 불멸의 영웅정신을 창조해주시고 혁명전통계승의 튼튼한 초석을 마련하시였으며 전후 사회주의혁명과 건설의 장엄한 새 력사를 방향지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전승령도사는 우리 당과 인민이 천만년 변함없이 계승하고 빛내여나가야 할 더없이 귀중한 사상정신적재부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전승세대가 가장 엄혹한 국난에 직면해서도 가장 큰 승리와 영광을 안아온것처럼 우리 국가와 인민은 앞으로 그 어떤 도전과 난관이 앞을 막아나선다 해도 용기백배하여 과감히 뚫고넘으며 반드시 부국강병의 대업을 성취할것이며 반제반미대결전에서도 영예로운 승리자가 될것이라고 확언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에게 백승의 력사를 변함없이 이어나갈 굳센 의지를 만장약해주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은 억만금에도 비길수 없는 혁명의 만년보물고이라고 하시면서 이를 통한 승리전통교양을 더욱 강화해나가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밝히시였다.

당과 정부, 무력기관의 지도간부들은 영웅조선, 영웅인민의 긍지를 더욱 높이 떨치며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책무를 다해나갈 철석의 맹세를 가다듬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승절경축행사에 특별초청된 조선인민군 제4군단관하 포병구분대 군인들을 만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7월 26일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72돐 경축행사에 특별초청된 조선인민군 제4군단 28보병사단 16포병련대 3대대 2중대 지휘관, 병사들을 만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훈련제일주의방침관철에서 모범을 보인 영용한 포병전투원들을 만나 따뜻이 축하해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시에는 싸움을 잘하는 군인이 영웅이지만 평화시기에는 훈련을 잘하는 군인이 영웅이라고 하시면서 중대군인들이 전승세대의 전투정신을 굳건히 계승하여 준엄한 시각에 가장 강하고 무자비한 정의의 포화력으로 승리의 돌파구를 앞장에서 열어나가는 일당백 포병들로 더욱 튼튼히 준비해가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며 그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고 건군사에 길이 남을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중대의 지휘관, 병사들은 자기들의 응당한 훈련성과를 값높이 평가해주시며 전군이 부러워하는 영예의 단상에 내세워주시고 대해같은 사랑과 은정을 거듭 베풀어주시는 김정은동지께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올리며 조국수호, 혁명보위의 성스러운 사명과 본분에 끝까지 충실할 굳은 결의를 다짐하였다.

특별소식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승 72돐에 즈음하여 조국해방전쟁 참전렬사묘를 찾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국해방전쟁승리 72돐에 즈음하여 7월 26일 전쟁로병들과 함께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찾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당과 정부, 무력기관의 지도간부들과 도당책임비서들, 성, 중앙기관 책임일군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참전렬사묘앞에는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가 정렬해있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국가와 인민의 생사존망을 판가름하던 준엄한 년대에 값비싼 희생으로 고귀한 승리를 쟁취한 인민군렬사들의 영생을 기원하시여 화환진정대 《영웅들의 넋》에 꽃송이를 진정하시고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들을 추모하여 조포가 발사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쟁로병들과 함께 렬사묘를 돌아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묘비마다에 새겨진 인민군렬사들의 모습은 지극히 평범하여도 사랑하는 조국과 혁명의 전취물을 목숨으로 사수하고 인류의 평화를 지켜낸 우리 조국의 장한 아들딸들의 불멸할 공적은 7.27의 거대한 세계사적의의와 더불어 세기를 이어 찬연히 빛나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영웅시대를 창조한 전승세대의 견결한 조국수호정신과 백절불굴의 혁명신념은 전체 인민과 전군의 장병들이 굳건히 계승하고 영원히 빛내여나가야 할 고귀한 사상정신적재부이며 우리 혁명의 불가항력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참전렬사들의 선혈이 깃든 이 땅우에 세상제일의 부흥강국을 기어이 일떠세우는것은 전승세대의 후손들인 우리모두의 마땅한 본분이고 혁명적의리이라고 하시면서 영광스러운 승리의 력사와 전통을 빛내이며 무비의 국력과 존엄을 떨쳐나가는 사회주의 우리 국가는 끝없이 륭성번영할것이라고 확언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혁명적이고 애국적인 삶의 참된 귀감인 전쟁로병들이 당과 정부의 깊은 관심과 온 나라 인민의 존대속에 부디 건강하여 즐거운 여생을 보내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국해방전쟁승리 72돐에 즈음하여 우의탑을 찾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국해방전쟁승리 72돐에 즈음하여 7월 26일 우의탑을 찾으시였다.

김정은동지의 명의로 된 화환이 우의탑에 진정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국해방전쟁의 위대한 승리사에 아로새겨진 중국인민지원군 렬사들의 전투적위훈과 공적을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 최선희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국제부장 김성남동지가 동행하였다.

특별소식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락원군바다가양식사업소건설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7월 13일 락원군바다가양식사업소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건설정형을 구체적으로 청취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전원회의 결정을 받들고 바다를 낀 모든 시, 군들에 도래할 미래의 변혁상을 그려주는 보람찬 창조투쟁에 뜨거운 진정을 묻으며 련속적인 공격전으로 위훈의 날과 달을 이어가고 있는 군인건설자들의 수고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바다가양식사업소건설장을 돌아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중앙이 직접 구상하고 추진하는 현대적인 바다가양식기지건설사업은 바다를 낀 전국의 60여개 시, 군들의 효률적인 진흥과 전망적발전을 확실하게 담보할 혁신적인 창조령역이라고 하시면서 날로 확대심화되고있는 지방발전정책실현에 새로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중앙이 직접 구상하고 추진하는 현대적인 바다가양식기지 건설사업은 바다를 낀 전국의 60여개 시, 군들의 효률적인 진흥과 전망적발전을 확실하게 담보할 혁신적인 창조령역이라고 하시면서 날로 확대심화되고있는 지방발전정책실현에 새로운 동력을 실어주게 될 중대한 건설사업이 드팀없이 다그쳐지고있는데 대해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동력을 실어주게 될 중대한 건설사업이 드팀없이 다그쳐지고있는데 대해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전국의 지역경제들을 새로운 토대우에서 개발확대하는 중장기적인 사업을 실속있게 실행하자면 앞으로의 투쟁단계에서 년차별에 따르는 시, 군별 바다가양식사업소건설계획작성을 선행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를 위한 중요방향을 밝히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바다가양식사업소건설은 산업시설설계에서 또 하나의 혁명적인 발전단계로 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건설이 비약적으로 발전할수록 경제적실리성과 효과성을 보다 중시할데 대한 문제, 농촌살림집구획들의 원림비중을 높일데 대한 문제, 방파제를 비롯한 해안구조물건설에서 가장 합리적이며 최적화된 방안을 적용할데 대한 문제 등 전국적범위에서 바다가양식사업소건설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는데서 나서는 제반 과업과 원칙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어촌지구에 훌륭히 일떠선 살림집들을 기쁨속에 돌아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군인건설자들이 충천한 전투적열의와 과감한 분발력을 배가하여 당창건기념일까지 락원포에 지역인민들의 복리를 길이 담보할 특색있는 창조물, 자랑할만한 사회주의락원의 실체를 완벽하게 펼침으로써 당중앙의 구상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우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특별소식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위화도온실종합농장건설장과 섬지구 영구화제방공사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당이 중시하고 선포한 거창한 건설대전을 무조건적인 집행정신과 완강한 실천력으로 받들어가는 군민건설자들의 자랑찬 로력적투쟁에 의하여 그 방대성과 독창성, 종합성에 있어서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온실농장건설이 목적한 시간표대로 추진되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김정은**동지께서 8월 1일 위화도온실종합농장건설장과 신의주시, 의주군의 섬지구 영구화제방공사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위화도온실종합농장건설정형을 료해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당이 중시하고 선포한 거창한 건설대전을 무조건적인 집행정신과 완강한 실천력으로 받들어가는 군민건설자들의 자랑찬 로력적투쟁에 의하여 그 방대성과 독창성, 종합성에 있어서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온실농장건설이 목적한 시간표대로 추진되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최근년간 건설한 대규모온실농장들을 다 합친것보다 더 방대한 면적에 각이한 류형의 남새온실들과 남새가공공장, 저장시설뿐 아니라 남새과학연구중심과 시험재배온실들, 수백세대의 살림집

들까지 일시에 일떠서는 대온실농장건설전역은 보람찬 개척을 위대한 창조와 변혁으로 부단히 상승확대해나가는 우리 위업의 무진한 발전력에 대한 일대 시위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건설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의 건설사업이 철두철미 미래에 대한 개척으로 되자면 새것과 발전에 대한 부단한 지향성과 함께 설계에서 해당 건설대상의 특성과 기능, 전망성에 부합되는 다기능화, 다용도화, 실용화를 구현하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건설에서 나타나고있는 일련의 편향들에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섬지구내의 모든 도로들을 질적으로 건설할데 대한 기술적문제, 지대적 및 지질적 조건에 맞게 배수, 통수능력을 과학적으로 전망성있게 조성할데 대한 문제, 대규모온실농장을 운영할 기술자, 기능공양성과 농장운영에 필요한 농기계 및 설비보장, 채종을 비롯하여 완공과 동시에 생산에 들어갈수 있는 사전준비를 책임적으로 할데 대한 문제, 온실주변들에 과일나무들과 지피식물을 많이 심고 방풍림과 양묘장을 꾸리는것과 함께 공지에 수유나무림, 양어사업소, 과수원, 자연공원 등도 조성할데 대한 문제 등 지역개발사업에서 나서는 일련의 중요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당이 바라는 건설의 기적은 대중의 자각되고 앙양된 정신력에 의하여 담보된다고 하시면서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우리 당의 전통적인 투쟁구호를 높이 들고 모든 건설자들을 혁명과 창조의 영웅들로 키우기 위한 정치사상교양을 한시도 중단없이 강도높게 진행해야 한다고, 그러자면 건설장에서의 화선식정치사상교양사업의 교범을 창조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압록강대안에 줄지어선 현대적인 살림집들을 배경으로 현대화, 집약화, 공업화된 대규모 남새온실까지 들어앉게 되면 이곳 섬지구는 자체의 튼튼한 발전잠재력을 갖춘 지역발전의 특색있는 거점, 혁신적인 진흥의 상징으로 이름떨치게 될것이라고 확언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이어 신의주시, 의주군의 섬지구 영구화제방공사정형을 료해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이곳 주민들이 숙명처럼 여겨오던 물란리가 이제는 옛말이 되였다고, 수도 평양의 대동강반 못지 않게 유보도와 강안공원까지 형성되고 있으니 정말 천지개벽이라고 기쁨을 금치 못하시며 대대로 물려온 재난의 섬을 락원의 섬으로 전변시키는데 공헌한 군인건설자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건설자들이 위대한 혁명의 담당자, 개척자, 실천자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본분을 깊이 자각하고 련속적이고 가속적인 창조투쟁으로 나라의 국경관문인 신의주지구에 일떠서는 온실종합농장을 당 제9차대회에 드리는 선물로 훌륭히 완공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인민군군부대 후방기지를 찾으시고 논판메기양어실태를 료해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7월 24일 논판양어를 장려할데 대한 당의 방침관철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한 인민군군부대 후방기지를 찾으시고 실태를 료해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당과 정부, 무력기관의 지도간부들과 도당위원회 책임비서들이 동행하였다.

이 후방기지에서는 논판양어를 장려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연구사업을 심화시켜 사료단위를 대폭 낮추면서도 공업적인 양어방법에 비해 증체률을 높여 정보당 70t이상의 메기를 생산하였을뿐 아니라 비료와 농약을 전혀 쓰지 않으면서 저수확지논에서 정보당 10여t의 벼를 수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논판마다에 메기들이 욱실거리고있는 흐뭇한 광경을 만족속에 바라보시며 전문메기공장도 아닌 단위에서 불과 몇명의 종업원과 가족들로 첫걸음을 떼여 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논판양어에 대한 과학연구 및 생산실천을 결합시켜 경제적효과성과 과학기술적담보를 확증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이 단위에서 창조한 논판메기양어방법과 경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논판양어를 하자면 물자원과 수질조건, 주변지역의 오염관계, 물대기와 물빼기조건, 토질특성을 고려하여 적지선택을 잘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특히 생육에 유리한 조건을 지어줄수 있도록 물고기다님길과 물웅뎅이를 만들어주는 등 논을 개조하는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동행한 간부들에게 세계적인 추세로 되고있는 록색재배 및 양어생산종합체계의 유익성에 대하여 가르쳐주시면서 이 분야에서 비약을 이룩하자면 개별적단위들의 성과와 경험을 도입하는데 그치지 말고 우리 식의 논판양어방법에 대한 과학적인 리론을 정립하고 그것을 규범화, 표준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올해부터 종어장을 꾸려놓고 200만마리의 새끼메기를 자체로 생산하여 군부대들과 기타 여러 단위들에도 보내주고있으며 앞그루로 심은 밀은 정보당 7t, 풋마늘은 정보당 30t을 생산하였고 벼는 정보당 10~12t을 생산하여 5정보의 논에서 50~60t을, 메기는 정보당 60~70t을 생산하여 300~350t을 생산할것으로 예견한다는 이곳 일군의 보고를 들으시고 우리 당이 중시

하는 양어를 통한 유기농법도입에서 실천적인 본보기를 창조했다고 고무격려해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정책을 진리로, 신념으로 받아들이고 군인생활개선, 인민생활향상에서 실제적인 성과를 안아오는 이런 일군들이 진정한 혁명가, 애국자들이라고 하시면서 이 단위에 특별감사를 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각급 지도간부들부터가 논판양어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소유하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이르시면서 이곳 일군들이 확립한 우리 식의 록색재배 및 양어생산방법을 확대도입하기 위한 방식상학과 조직사업을 적극적으로 내밀데 대하여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 포병구분대들의 사격훈련경기를 참관하시였다

최정예혁명강군의 전투적위력을 더욱 만반으로 다지기 위한 강도높은 훈련열풍이 전군에 나래치는 속에 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 포병구분대들사이의 사격훈련경기가 7월 23일에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포사격훈련경기를 참관하시였다.

최정예혁명강군의 전투적위력을 더욱 만반으로 다지기 위한 강도높은 훈련열풍이 전군에 나래치는 속에 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 포병구분대들사이의 사격훈련경기가 7월 23일에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김정은**동지께서 포사격훈련경기를 참관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박정천동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상 노광철동지가 동행하였다.

김정은동지를 현지에서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리영길동지를 비롯한 총참모부의 지휘관들과 조선인민군 각급 대련합부대 군정지휘관들이 영접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현지에 도착하시여 포사격훈련경기 준비정형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고 총참모부의 계획에 따라 진행하는 훈련경기의 중요성을 강조하시였다.

포사격훈련경기는 각 포병구분대들을 야간행군과 전투전개, 여름철 해안지대환경과 조건에서의 불의적인 적목표에

대한 화력습격능력을 검열하고 현대포병전의 전투조법에 숙달시키며 화력임무수행결과를 판정하여 등수를 정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였다.

대련합부대장들이 직접 관하구분대들의 화력습격지휘를 맡아하였다.

사격명령을 받은 포병구분대들은 우리 식의 전투교범에 정통하고 적을 일격에 응징할수 있도록 억세게 벼려온 실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불의에 제시된 해상목표를 제한된 시간내에 급습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실전과도 같은 훈련경기진행흐름과 결과에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번 훈련경기는 조선인민군 제7차 훈련일군대회이후 우리 군대의 싸움준비완성에서 일어나고있는 실제적이며 근본적인 변화를 직관해주는 좋은 계기로 된다고, 이는 우리 군인들의 특출한 정치사상적 각오에 과학적인 전투훈련체계와 훈련제도가 안받침된 긍정적인 결과이라고 평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혁명무력의 핵심병종의 전투력은 마땅히 당의 훈련제일주의방침관철을 전군의 앞장에서 선도하고 강력히 견인하는 고도의 완벽성과 무비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날로 급변하는 현대전장의 가혹하고 첨예한 환경에 맞게 우리 식의 포병전술과 전투조법들을 부단히 혁신적으로, 급진적으로 진화시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임의의 전쟁과 위기에도 주동적으로 대응할 용기와 능력, 자신감은 전례와 한계를 초월하는 훈련혁명의 용광로속에서 련마되며 그 어떤 강적도 타승하는 종합적이며 가공할 전력이자 수호자의 참다운 영웅성이고 강인성이며 금별의 위훈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가장 확실한 전쟁억제력은 가장 철저한 주적관점이라는것을 다시금 상기시킨다고 하시면서 전군의 각급이 포병무력전반에서 일어나는 획기적인 강세에 호응하여 훈련중시기풍을 더욱 확고히 세우고 실전훈련에 전력하여 언제든지 전쟁에 즉각 림할수 있는 군대, 싸우면 적을 반드시 괴멸시키는 일당백무적강군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경기판정에서 내세운 모든 목표들을 원만히 달성하고 강한 우의 성적으로 우승한 조선인민군 제4군단 28보병사단 16포병련대 3대대 2중대 전투원들을 축하해주시면서 표창으로 중대를 전승 72돐 경축행사에 특별초청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로씨야련방 외무상을 접견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7월 12일 조로외무상들사이의 제2차 전략대화에 참가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한 로씨야련방 외무상 쎄르게이 라브로브동지를 접견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라브로브동지와 반갑게 상봉하시고 따뜻하고 동지적신뢰가 넘치는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나누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7월 12일 조로외무상들사이의 제2차 전략대화에 참가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한 로씨야련방 외무상 쎄르게이 라브로브동지를 접견하시였다.

로씨야련방 외무성 부상 안드레이 루덴꼬동지와 우리 나라 주재 로씨야련방 특명전권대사 알렉싼드르 마쩨고라동지가 함께 참가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라브로브동지와 반갑게 상봉하시고 따뜻하고 동지적신뢰가 넘치는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나누시였다.

석상에서 로씨야련방 외무상 쎄르게이 라브로브동지는 **김정은**동지께 보내는 로씨야련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동지의 따뜻한 인사를 정중히 전해드리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이에 깊은 사의를 표하시고 존경하는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동지에게 보내는 친근한 인사를 전하시였다.

담화에서는 2024년 6월 력사적인 조로수뇌회담에서 이룩된 합의들을 충실히 리행하고 미래지향적인 새시대 조로관계의 불패성과 생활력을 과시하며 조로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를 더욱 군건히 발전시켜 공동의 핵심리익을 수호하기 위한 일련의 중요문제들과 각 분야들에서의 호상협조사항들, 국제 및 지역정세에 관한 량국

지도부의 의견들이 폭넓게 교환되고 완전일치한 립장을 확인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로 두 나라는 동맹관계수준에 부합되게 모든 전략적문제들에 대하여 견해를 함께 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이는 조로 두 나라사이에 구축된 높은 전략적 수준을 보여준다고 평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로외무상들의 제2차 전략대화의 만족한 결과를 청취하시고 급변하는 국제지정학적형세에 주동적이며 적극적인 자세에서 림하려는 조로 두 나라의 조정조화된 외교적립장이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긍정적기여를 하게 될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로씨야련방 외무상 쎄르게이 라브로브동지는 조로외교부문사이의 전략적의사소통이 진행된데 대한 소감을 피력하면서 국제무대에서 로씨야련방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이의 전략전술적협동과 공동보조를 보다 강화할 립장을 표명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앞으로도 조로국가간조약의 정신에 맞게 철저히 우크라이나사태의 근원적해결과 관련하여 로씨야지도부가 취하는 모든 조치들을 무조건적으로 지지성원할 용의를 다시금 확언하시였다.

담화에서는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의 정신에 맞게 그 어떤 정세변화에도 구애됨이 없이 조로 두 나라가 쌍방의 핵심리익을 철저히 수호하고 쌍무관계의 전면적확대발전을 강력히 추동하며 인민들의 끊임없는 복리와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하기 위한 려정에서 긴밀히 지지련대해나가려는 두 나라 지도부의 의지가 뚜렷이 표명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로씨야군대와 인민이 뿌찐대통령동지의 탁월한 령도밑에 나라의 존엄과 근본리익을 수호하고 로씨야련방의 륭성번영을 위한 성업수행에서 반드시 승리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위대한 로씨야에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기를 충심으로 기원하시였다.

특별소식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나라를 방문한 로씨야련방 문화상을 접견하시고 예술공연들을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6월 29일 조로국가간 새 조약체결 1돐에 즈음하여 로씨야련방 문화성대표단을 인솔하고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올가 류비모바 문화상을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접견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6월 29일 조로국가간 새 조약체결 1돐에 즈음하여 로씨야련방 문화성대표단을 인솔하고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올가 류비모바 문화상을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접견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로씨야련방 문화성대표단의 평양 방문을 열렬히 환영하시고 따뜻하고 친선적인 담화를 나누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로국가간 새 조약체결이후 각 분야에서의 폭넓고 심도있는 교류와 협조가 날로 확대발전되고있는데 대하여 평가하시면서 이는 두 나라, 두 인민들의 공영발전과 복리증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가 다 중요하지만 특히 문화예술부문의 교류는 두 나라의

민심적기초를 강화하고 인민들사이의 친선과 우의, 호상리해와 공감의 뉴대를 굳건히 하는데서 커다란 작용을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로부터 문화분야가 두 나라 관계를 인도하는것이 중요하며 그러자면 문화예술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더욱 확대하여 호상 우수한 문화전통에 대해 더 잘 알고 더 많이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뜻깊은 6월에 로씨야련방 문화상이 직접 예술단들을 인솔하고 평양을 방문한것은 우리 인민들이 로씨야인민의 훌륭한 문화에 대해 더 깊은 리해를 가지는 중요한 계기로 된다고 하시면서 이번 방문이 두 나라사이의 전투적우의와 친선의 감정을 더욱 승화시키게 될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석상에서 문화분야에서의 교류협력과 관련한 전망적인 계획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동평양대극장에서 올가 류비모바 문화상의 안내를 받으시며 로씨야의 대기념비들과 이름난 건축물들, 아름다운 자연과 주요도시들의 풍경을 담은 사진들을 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날 로씨야련방 문화상과 함께 로씨야예술인들의 평양방문공연과 우리 예술인들의 답례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특색있고 열정적인 공연으로 날로 개화만발하는 조로친선을 노래한 로씨야예술인들을 축하하시여 꽃바구니를 전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로씨야련방 문화성대표단과 작별하시면서 존경하는 로씨야련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동지와 전체 로씨야인민에게 보내는 따뜻한 축원을 전해줄것을 올가 류비모바 문화상에게 당부하시였다.

20성상의 항일혁명투쟁이 안아온

조국해방

1945-2025

조국해방 80돐에 즈음하여

1945년 8월 15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조국해방위업을 이룩하신 력사의 날이다.

조국해방은 우리 인민의 운명개척에서 근본적인 전환의 계기로 되였으며 자주독립국가건설의 광활한 길을 열어놓은 거대한 정치적사변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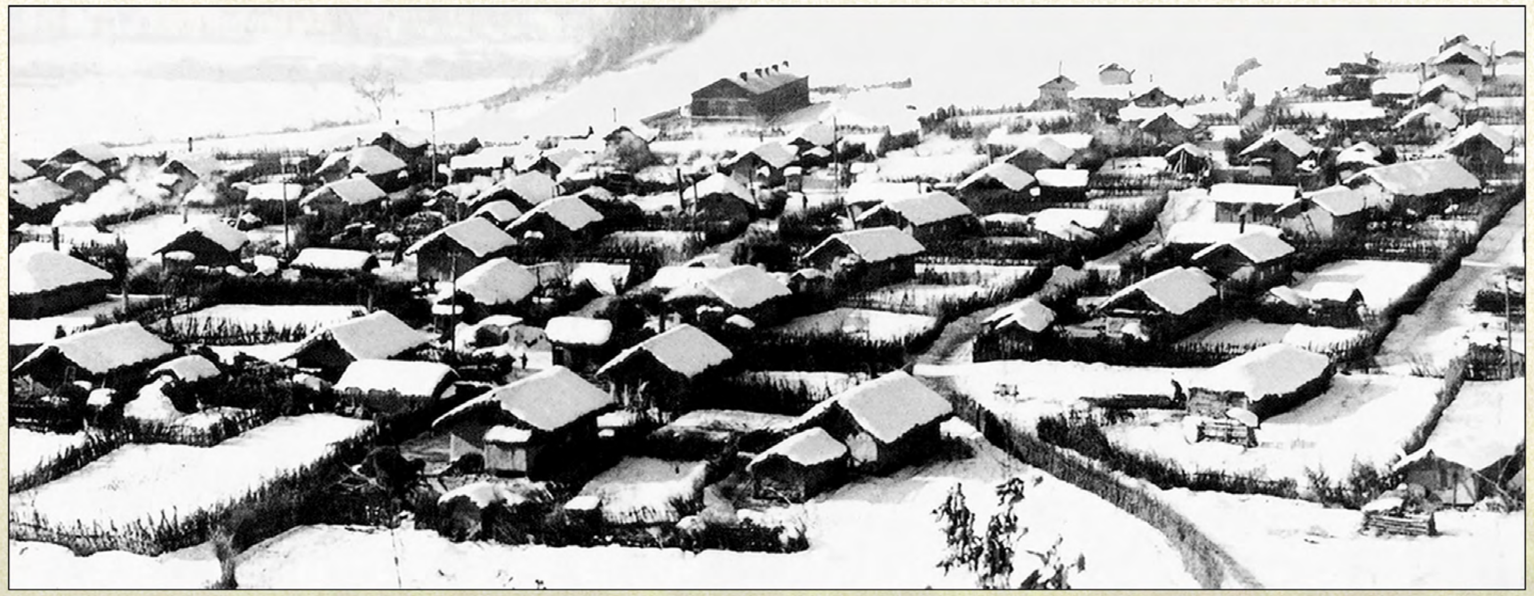
올해는 조국해방 80돐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반일인민유격대를 창건하시던 시기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2년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신데 대한 자료들의 일부

반일인민유격대창건당시의 기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반일인민유격대창건을 선포하신 안도현 소사하 무주툰

우리 인민이 일제의 군사적강점을 끝장내고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한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20성상의 항일혁명투쟁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였다.

일찌기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독창적인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것을 혁명실천에 구현하여 항일혁명투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인민대중을 의식화하고 그들을 하나로 묶어세워 투쟁에로 불러일으킨다면 능히 우리 인민의 힘으로 일제를 쳐부시고 조국해방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이 그이의 확고한 신조였다.

1930년 6월 조선혁명의 진로를 명시하신 그이께서는 1931년 12월 《무장에는 무장으로, 반혁명적폭력에는 혁명적폭력으로!》라는 구호를 제시하시고 유격전의 형식을 기본으로 하는 항일전쟁을 정식 선포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당시 국가적후방이나 정규군의 지원에 의해서만 진행할수 있는것으로 공인되여있던 유격전을 무장투쟁의 기본형식으로 규정하신것은 력사상 처음으로 밝힌 식민지민족해방투쟁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이였다.

그이께서는 1932년 4월 25일 우리 인민의 첫 혁명적 무장력인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시고 부단히 확대강화하시였으며 1936년 5월 상설적인 반일민족통일전선체이며 강유력한 지하혁명조직인 조국광복회를 창건하시여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반일의 기치아래 결속시키시였다.

자체의 상비적무력에 의한 무장투쟁과 전인민적항쟁을 결합한 조국해방!

이것은 항일혁명전쟁 전 기간 위대한 수령님께서 견지하여오신 혁명로선이였고 작전적구상이였다.

국가적인 후방이나 정규군의 지원도 없이 아시아의 《맹주》로 자처하던 일제와 사생결단의 싸움을 벌려야 하는 항일대전은 세계혁명전쟁사에서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간고한 투쟁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정세발전의 요구에 맞게 독창적인 군사사상과 전략전술적방침들을 제시하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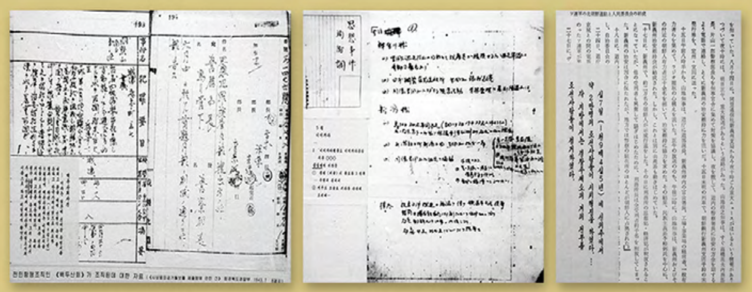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속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뒤줄 가운데 서계시는분)

기성리론에 구애됨이 없이 기묘한 전법들을 적극 활용하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의 승전소식은 인민들속에 전설처럼 전해지며 조국해방의 희망을 안겨주었고 적들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자체의 힘으로 무기들을 만들어내도록 하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야장간의 철공도구들을 가지고 권총, 보총, 탄알 등을 수리재생하였으며 화약도 자체로 만들고 위력한 나무포와 연길폭탄과 같은 작탄도 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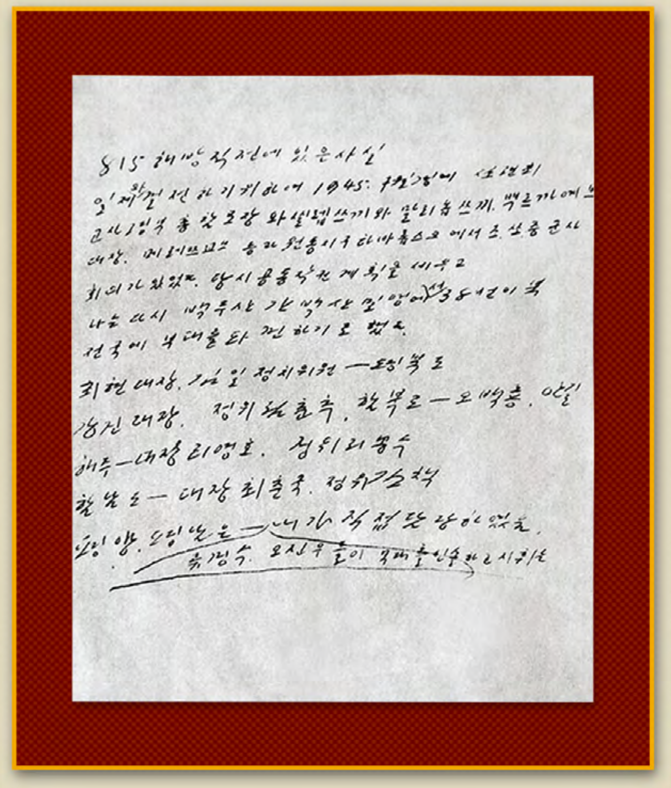


전민항쟁조직들이 도처에 조직된데 대한
당시 일제의 문건과 자료

항일혁명투사들이 쓴 구호문헌중에서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들속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가운데 계시는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리용하시던 백두산밀영사령부



조국해방을 위한 최후공격작전계획과 관련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친필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맞이하기 위하여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있는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에게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수 없는것처럼 유격대가 인민을 떠나서 살수 없다고 하시면서 그들이 인민의 안전과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도록 하시였다.

하기에 인민들은 조선인민혁명군의 전투행동을 적극 도와나섰고 물심량면으로 지지성원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과 인민들과의 혈연적뉴대는 조선인민혁명군이 수적, 기술적으로 우세한 침략자들과의 싸움에서 언제나 승리할수 있게 하였다.

1943년에 들어서면서 일제는 광대한 전선에서 참패를 거듭하고 헤여날수 없는 막다른 궁지에 몰리고있었다.

이러한 정세발전의 추이를 예리하게 통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43년 1월상순 조국해방3대로선을 제시하시고 이해 2월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소부대, 소조 및 혁명조직책임자회의를 소집하시고 그 로선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를 명시한 력사적인 연설

1945년 8월 15일
일본제국주의
무조건항복

조선인민은 1945년 8월 15일 조국해방의 력사적순간을 맞이하였다.

해방의 환희에 넘쳐있는 인민들

조국개선을 환영하는 평양시환영군중대회에서 연설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1945년 10월

을 하시였다.

그이께서 제시하신 조국해방3대로선의 내용은 첫째로 조선인민혁명군의 총공격으로 일제침략군에 섬멸적인 타격을 주는것이고 둘째로는 조선인민혁명군의 총공격에 호응하여 전인민적봉기를 일으키는것이며 셋째로는 조선인민혁명군의 총공격에 배합하여 조선인민혁명군 소부대들과 국내의 무장조직들이 배후련합작전을 벌리는것이였다.

조국해방3대로선은 일제와의 최후결전에서 그 생활력과 정당성이 남김없이 과시되였다.

1945년 8월 9일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해방을 위한 총공격전을 개시할데 대한 명령에 따라 조선인민혁명군의 맹렬한 총공격에 합세하여 수많은 전민항쟁조직들은 도처에서 과감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리하여 일제는 최후공격작전이 시작된지 한주일만인 8월 15일 황급히 무조건항복을 선언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1945년 8월 15일 그처럼 간고한 항일혁명전쟁은 우리 인민의 승리로 끝났으며 민족해방전쟁의 세계사적모범으로 되였다.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실현, 이것은 제국주의자들과의 대결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 실정에 맞게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갈 때 언제나 승리한다는 진리를 력사에 각인시켰다.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업적은 조국청사와 식민지민족해방투쟁사에 길이 빛날것이다.

글 박경철

주체적혁명무력건설사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을 찾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1960년 8월

지금으로부터 65년전인 1960년 8월 25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을 찾으시여 혁명무력에 대한 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장구한 기간 우리 당과 인민을 령도하여오시면서 조국과 인민, 시대와 력사앞에 거대한 업적을 쌓으시였다.

그중에서도 그이의 혁명무력건설업적은 오늘 정치군사강국으로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의 력사와 더불어 길이 빛나고있다.

그이께서 우리 혁명무력에 대한 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 날은 지금으로부터 65년전인 1960년 8월 25일이였다.

이날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을 찾으신 그이께서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부대가 이룩한 빛나는 위훈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고 부대의 전투임무를 철저히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을 밝혀주시였다.

이때로부터 그이께서는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나라의

해병들의 싸움준비정형을 료해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1965년 5월

군인들의 전투훈련을 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1983년 4월

전방지휘소에 오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1997년 4월

방위력강화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의 정치사상적위력을 높이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시였으며 그들이 사회주의 조국의 수호자로서의 사명을 다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끊임없이 군부대들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인민군대의 군사기술적위력도 백방으로 강화해나가도록 하시였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인민군대는 1960년대의 《푸에블로》호사건과 《EC-121》대형간첩비행기사건, 1970년대의 판문점사건 등 적들의 전쟁도발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며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수호할수 있었다.

1990년대중엽부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군력강화에 더 큰 힘을 넣으시였다.

여러 사회주의나라들의 붕괴를 기화로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극단적인 봉쇄와 제재 그리고 련이어 들이닥친 자연재해로 하여 우리 인민은 가장 엄혹한 시련과 난관을 겪게 되였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그이께서는 선군정치를 사회주의 기본정치방식으로 내세우시였다.

군력이 약하면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킬수 없고 치욕을 당해야 하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군부대들에 대한 현지지도를 끊임없이 이어가시였다.

인민군군부대들을 찾으실 때마다 군인들의 군무생활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군인들에게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신 그이의 자욱은 초도와 오성산, 철령을 비롯한 조국방선초소마다 력력히 새겨져있다.

그이께서는 국방공업발전에도 커다란 힘을 넣으시여 인민군대가 그 어떤 적들과의 대결에서도 승리를 이룩할수 있는 담보를 마련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인민군군인들이 나라의 최전방초소들을 믿음직하게 지켜나가도록 하시는 한편 경제건설의 주요전구들마다에서 진격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도록 하시였다.

열병대오에 답례를 보내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2010년 10월

그이의 령도밑에 인민군군인들은 안변청년발전소를 비롯한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수많이 일떠세웠으며 인민군대의 혁명정신과 투쟁기풍이 온 나라에 파급되여 나라의 경제문화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이 일어났다.

이 나날에 우리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치게 되였으며 세계 《유일초대국》이라고 자처하는 미국의 대조선압살공세를 단호히 제압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게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새기신 혁명무력에 대한 령도의 첫 자욱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 나라는 군사강국의 지위에 올라서게 되였고 사회주의강국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는것이다.

글 박의철

조국해방전쟁승리 72돐 뜻깊게 경축

위대한 전승 72돐경축 조국해방전쟁시기상징종대들의 기념행진의식 진행

세기와 년대를 이어 줄기차게 이어지는 주체조선의 승리의 력사, 불굴의 영웅정신을 과시하며 전승 72돐경축 조국해방전쟁시기상징종대들의 기념행진의식이 7월 27일 저녁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당과 정부, 무력기관의 지도간부들이 전쟁로병들과 함께 주석단에 등단하였다.

도당위원회 책임비서들과 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장들이 주석단에 자리잡았다.

우리 나라 주재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과 대표부 성원들이 초대되였다.

조국해방전쟁승리 72돐 경축행사참가자들과 당중앙위원회 일군들, 전승절경축행사에 특별초청된 조선인민군 제4군단관하 포병구분대 군인들을 비롯한 인민군장병들, 성, 중앙기관과 평양시안의 일군, 공로자들, 혁명학원 원아들, 청년학생들이 관람석에 자리잡았다.

주체조선의 승리와 영광의 7.27을 세대를 이어 경축하는 인민의 환희를 더해주며 종합군악대가 경쾌한 선률과 특색있는 기교로 군악례식을 펼치였다.

행진시작을 알리는 신호나팔소리가 울려퍼지자 한세대에 강포한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는 력사의 기적을 창조하시고 영웅조선, 자주강국의 영원한 승리전통의 시원을 열어놓으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김일성**동지의 존귀하신 영상을 정중히 모신 친위중대상징종대를 선두로 기념행진이 개시되였다.

화보 【소 식】

행진대원들은 주체강국의 70여년의 승전사를 영원무궁한 백승과 영광에로 인도하시는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절대충성으로 받들어 당과 혁명을 보위하고 령토와 인민을 사수하는 성전에서 불후의 명성을 떨쳐나갈 철석의 신념과 전투적열광에 넘쳐있었다.

경축행사의 마감을 환희롭게 장식하며 조선인민군 공군비행대가 부채살대형으로 광장상공을 통과하였다.

의식이 끝나자 지심을 울리는 축포성이 하늘땅을 진감하고 오색찬연한 불꽃들이 전승절의 밤하늘을 아름답게 물들이며 쏟아져내렸다.

조국해방전쟁승리 72돐에 즈음하여 전승세대와의 상봉모임과 예술공연 진행

조국해방전쟁승리 72돐에 즈음한 전승세대와의 상봉모임과 예술공연이 7월 27일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당과 정부, 무력기관의 지도간부들이 전쟁로병들과 함께 주석단에 자리잡았다.

당중앙위원회 일군들, 도당책임비서들, 전승절경축행사에 특별초청된 조선인민군 제4군단관하 포병구분대 군인들을 비롯한 인민군장병들, 성, 중앙기관과 평양시안의 일군, 공로자들, 혁명학원 원아들, 청년학생들이 참가하였다.

우리 나라 주재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과 대표부 성원들이 초대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총리인 박태성동지가 발언하였다.

총리동지는 당과 정부의 위임에 따라 우리 조국의 신성한 전승절의 영원한 주인공들인 전국의 모든 전쟁로병들과 전시공로자들에게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드리였다.

총리동지는 전승세대가 한생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살며 싸웠고 우리 세대에 바통으로 물려준 혁명신념, 수호의 정신이 꿋꿋이 살아있기에 승리의 대는 굳건히 이어질것이라고 하면서 모두다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후세토록 계승될 전승국의 명예를 위하여, 영광스러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무궁할 존엄과 번영을 위하여 용기백배 앞으로 나아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였다.

이어 예술공연이 진행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주악되였다.

동방일각에 일떠선 첫 인민의 나라, 요람기의 신생공화국이 《전쟁의 세기》로 불리우는 20세기 중반기에 미제에 의해 강요당한 전대미문의 참화를 고발하는 기록화면들이 피어린 추억을 불러오며 무대우에 흘렀다.

수호자가 틀어잡았던것은 보병총, 침략자가 휘두른것은 원자탄, 세계전쟁사에 그 전례를 찾아볼수 없는 중과부적인 열전에서 《당과 수령을 위하여!》, 이 부름을 진군가마냥 높이 웨치며 전인민적, 전국가적단결의 새 력사와 천추만대로 계승해야 할 고귀한 승리전통을 창조한 전승세대의 넋과 공적을 길이 전하는 명곡들이 관람자들의 심금을 울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전승열병식장에서 조선인민의 승리를 선언하시는 존귀하신 영상이 화면에 모셔지고 우렁우렁하신 육성록음이 울리자 관람자들은 탁월한 군사사상과 리론, 령활한 전략전술과 담대한 배짱, 열화와 같은 사랑과 믿음으로 20세기의 군사적기적을 창조하시고 영웅조선을 탄생시키신 만고의 령장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심에 넘쳐 열광의 박수를 터쳐올리였다.

전승국의 명예와 더불어 무궁토록 영생의 금별로 빛날 영웅세대에 대한 후손들의 경의가 뜨겁게 흐르는 노래 《전승세대》는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이 세상 다할 때까지 사랑하는 조국에 절대의 신성함과 영광만을 더해주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같은 애국충성을 격조높이 구가한 공연은 로동당시대 전승찬가들인 《우리의 7.27》, 《전승의 축포여 말하라》로 끝났다.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일군들과 근로자들, 인민군장병들, 청소년학생들이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당과 정부, 무력기관의 지도간부들이 대성산혁명렬사릉을 찾아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7.27 위대한 전승의 날을 맞으며

온 나라 전체 인민이 크나큰 긍지와 자부속에 승리의 7.27을 환희롭게 경축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과 각지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 절세위인들의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찾아 근로자들과 인민군장병들, 청소년학생들이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업적이 력력히 깃들어있는 각지의 혁명사적지들을 찾은 근로자들과 인민군장병들은 탁월한 사상과 전략전술로 세계전쟁사에 특기할 군사적 기적을 이룩하신 위대한 령장의 천출위인상을 가슴뜨겁게 절감하였다.

위대한 전승의 날, 조국해방전쟁승리 72돐을 경축하는 평양시청년학생들의 야회 및 축포발사가 7월 26일 **김일성**광장에서, 조국해방전쟁승리 72돐 경축연회가 7월 27일 인민문화궁전과 옥류관, 청류관에서 진행되였다.

각지의 수많은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전쟁로병들의 가정을 찾아 당의 은정속에 로당익장하며 인생의 값높은 영광과 행복을 누려가는 혁명선배들을 열렬히 축하

당과 정부의 지도간부들과 당중앙위원회 일군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무력기관 일군들이 신미리애국렬사릉을 찾아 렬사들의 묘비앞에 꽃송이를 진정하고 숭고한 경의를 드리였다.

전승세대의 넋을 이어나가기 위한 새세대들의 결의모임과 계승의 행진 진행

평양시청년학생들의 야회 및 축포발사 진행

해주었다.

전승세대의 넋을 이어나가기 위한 새세대들의 결의모임과 계승의 행진이 수도 평양에서,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지휘관, 대원들의 결의모임과 계승의 행진이 450정보온실농장건설장에서 진행되였다.

위대한 전승의 날을 맞으며 수도 평양과 전국각지에서 다채로운 경축공연들이 있었다.

전승세대가 물려준 고귀한 사상정신적재부를 길이 빛내이며 위대한 당을 따라 전면적부흥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는 계승자들의 강렬한 지향과 열정이 각지에서 열린 무도회장들에서 분출되였다.

수도와 각지의 급양 및 편의봉사망들에서 특색있는 명절봉사가 진행되였으며 중앙동물원, 문수물놀이장을 비롯한 문화휴식터들에서도 명절을 즐기는 근로자들과 학생소년들, 어린이들의 웃음소리가 그칠줄 몰랐다.

조국해방전쟁승리 72돐 경축연회 진행

남포조선소에서 다음해 당창건기념일까지 《최현》급구축함 3호함건조를 결의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이 펼친 군사강국건설로선을 높이 받들고 남포조선소 로동계급이 우리 해군의 급진적인 변화를 위한 계속혁신, 련속도약의 진군보폭을 줄기차게 내짚고있다.

믿음직한 대규모함선건조기지이며 자력갱생의 전통과 위력으로 영예높은 남포조선소의 로동자, 기술자, 일군들은 우리나라를 21세기의 해양강국으로 급부상시키는 력사적성업의 돌파구를 새세대 첫 다목적구축함의 훌륭한 건조로써 열어제낀 그 기세, 그 기백을 더욱 배가하여 2026년 10월 10일까지 또 한척의 신형구축함을 건조할것을 결의해나섰다.

《최현》급구축함 3호함건조를 위한 남포조선소 종업원궐기모임이 21일 현지에서 진행되였다.

남포조선소 지배인 윤치걸동지가 보고를 하였다.

모임에서는 《최현》급구축함 3호함건조시작이 선포되고 2026년 10월 10일까지 구축함건조를 끝내기 위한 일정계획이 발표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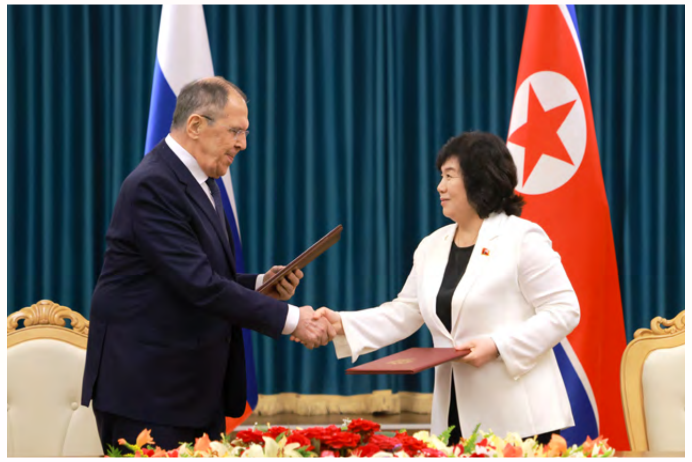
이어 결의토론들이 있었다.

모임에서는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맹세문이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속에 채택되였다.

모임이 끝난 후 남포조선소의 로동계급은 《최현》급구축함 3호함건조에 진입하였다.

【소 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과 로씨야련방 외무상사이의 제2차 전략대화 진행



조로 두 나라 국가수반들의 전략적인도밑에 량국관계가 포괄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불패의 동맹관계로 승화발전되고있는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 최선희동지와 로씨야련방 외무상 쎄르게이 라브로브동지사이의 제2차 전략대화가 7월 12일 원산에서 진행되였다.

조로외무상들사이의 전략대화에서는 국가수반들의 구상과 의도에 맞게 조로관계의 거폭적인 진전을 가속화하는데서 당면하게 나서는 실천적문제들이 심도있게 토의되였으며 두 나라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의 정신과 제반 조항들을 성실히 리행함으로써 오랜 력사적뿌리와 전통을 가지고있는 조로관계를 백년대계의 전략적관계로 이어나가려는 확고부동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쌍방은 국제무대들에서 호상협력을 강화하면서 국가주권과 령토완정, 국제적정의를 수호하기 위한 전략적소통과 협조를 더욱 심화시켜나갈 립장을 다시금 피력하였다.

로씨야련방측은 조선반도정세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현 지위를 부정하려는 임의의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반대하며 국가의 안전과 주권적권리를 수호하려는 조선측의 정당한 노력에 대한 확고부동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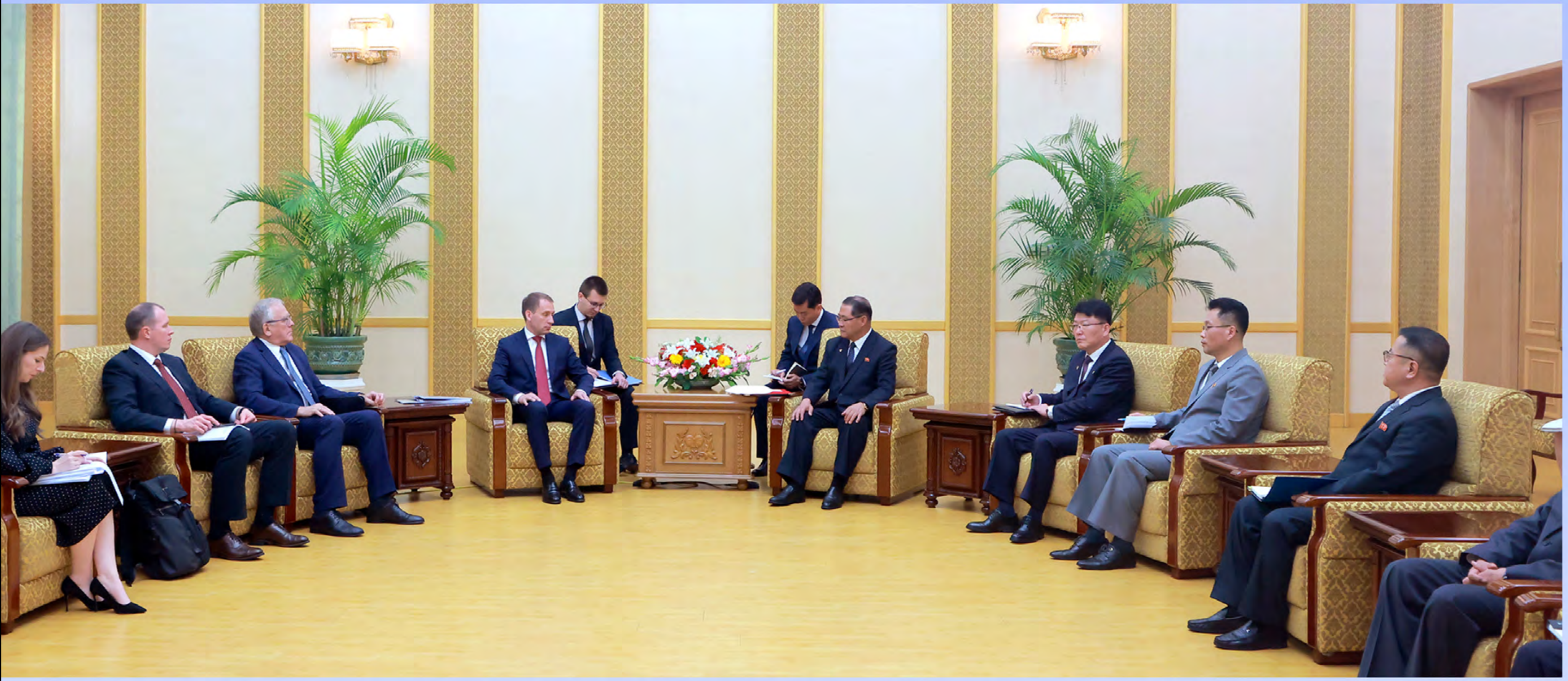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측은 우크라이나분쟁의 근원을 제거하고 국가의 자주권과 안전리익, 령토완정을 수호해나가기 위한 로씨야정부의 모든 조치들에 대한 전적인 공감과 지지를 표시하였다.

주요국제문제들에 대한 의견교환에서는 복잡다단한 현 국제정세에 대한 쌍방의 평가가 일치하다는것이 확인되였으며 세계적판도에서 더욱 로골화되고있는 적대세력들의 패권지향적인 침략책동에 보다 각성을 높이고 전략적의사소통을 강화하면서 공동의 립장을 조률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조로외무상들은 상급전략대화를 비롯하여 두 나라 대외정책기관들사이의 의견교환을 여러급에서 계속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전략대화에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과 로씨야련방 외무성사이의 2026년-2027년 교류계획서가 체결되였다.

조로외무상들사이의 제2차 전략대화는 새 국가간조약에 부합되게 쌍무관계를 전방위적으로 확대발전시키고 두 나라사이의 전략전술적협동과 지지련대를 강화해나가는데서 의의있는 계기로 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총리 박태성동지가 로씨야련방 자연부원생태학상을 만났다.

조로정부간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위원장들사이의 회담이 진행되였다.

조로정부간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로씨야측위원장일행 우리 나라 방문

평양-모스크바 직항로운영재개, 축하의식이 진행되였다.

세계적인 관광문화휴양지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

아름다운 바다가정서로 유명한 갈마반도에 현대적인 해안관광지구가 완공되여 사람들 누구나 관광문화의 새 경지를 체감하게 한다.

해안선을 따라 뻗어간 명사십리백사장에는 하루수용능력이 수만명에 달하는 해수욕장과 고속뽀트, 수상자전거, 물스키를 비롯한 각종 해양체육기재들, 해수욕봉사시설들이 갖추어져있다.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에서 지난 7월 1일부터 관광봉사가 시작되였다.

조선동해명승지의 아름다운 풍치를 한껏 돋구어주며 대기념비적창조물로 솟아오른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는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기 위해 끊임없는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마련된 고귀한 결정체이다.

아름다운 바다가정서로 유명한 갈마반도는 낮과 밤, 여름과 겨울의 기온차가 심하지 않고 해비침률이 높은것으로 하여 여름뿐 아니라 사계절관광활동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있다.

바로 이러한 곳에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인민의 문화휴식터를 꾸리실 웅대한 설계도를 펼쳐주시고 공사 전 과정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그리하여 갈마반도의 명사십리가 세계적인 관광문화휴양지로 훌륭히

일떠서게 되였다.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에는 모든 조건이 훌륭히 갖추어진 근 2만명 숙박능력의 호텔과 려관들, 해수욕봉사시설들과 다양한 체육, 오락시설들, 상업 및 급양봉사시설들이 꾸려져있다.

우리 나라에서 7, 8월은 해수욕철인것으로 하여 이곳에서 손님들의 발길이 먼저 가닿는 곳은 해수욕장이다.

조선동해의 맑고 푸른 물에 온몸을 시원히 적시며 한여름의 무더위를 가시는 해수욕이야말로 이곳 해안관광에서 으뜸인듯싶다.

명사십리야외물놀이장도 손님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급강하물미끄럼대, 썰매물미끄럼대를 비롯한 형형색색의 각이한 물놀이유희기재들을 리용할수 있는 이곳에서 손님들은 시간가는줄 모르고있다.

파도를 헤가르며 드넓은 바다를 질주하는 돛배며 고속뽀트, 수상자전거타기는 청년들속에서 인기가 높다.

백사장에서의 오토바이타기는 주로 남성들이 독차지하고있다.

하얀 모래불에서 승벽내기로 벌리는 모래터배구를 비롯한 체육경기도 손님들이 즐기는 해안관광의 한 종목이다.

이뿐이 아니다.

관광지구의 급양봉사기지들에서 맛보는 평양랭면이며 조선동해의 특산들도 별맛이지만 봉사자들의 친절한 봉사에 마음도 흥그러워진다.

명사십리에 펼쳐지는 황홀한 야경은 손님들에게 유정한 정서를 안겨준다.

지금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로는 많은 근로자들이 찾아와 휴식의 한때를 보내고있다.

사진 최원철, 김성철, 리철진
글 김선경

www.dprkportal.kp www.rodong.rep.kp www.kcna.kp www.vok.rep.kp www.minju.rep.kp www.naenara.com.kp www.pyongyang-times.com.kp www.youth.rep.kp www.mediaryu-gyong.com.kp www.korean-books.com.kp www.kass.org.kp www.mfa.gov.kp www.tourismdprk.gov.kp www.korart.sca.kp www.kftrade.com.kp www.korstamp.com.kp www.ryomyong.edu.kp www.moph.gov.kp www.mirae.aca.kp
www.sdprk.org.kp www.yongsaeng.org.kp www.koreanarchitecture.com.kp www.korfilm.com.kp www.ryongnamsan.edu.kp www.kut.edu.kp www.gpsh.edu.kp www.kiyctc.com.kp www.korelcfund.org.kp www.kza.org.kp www.manmulsang.com.kp www.cooks.org.kp www.knic.com.kp www.friend.com.kp www.koredufund.org.kp www.ma.gov.kp www.fia.law.kp www.dprknado.org.kp

© 조선화보사 2025
화보 《조선》은 인터네트 《조선의 출판물》 홈페지에 조선어, 중어, 로어, 영어, 프랑스어, 에스빠냐어로 게재됩니다.

주소: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전자우편(E-mail):flph@star-co.net.kp

ㄱ-25088036241